

완주 · 전주 힘 모아 광역교통도시로 도약

전주시, 완주 · 전주 통합 염원 담은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 발표

전주시가 완주 · 전주의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완주군과 하나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진정한 광역생활권으로 도약해나가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운동목 전주 부시장과 완주 · 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송병용 부위원장, 노동식 지역개발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 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으로 시간선제 노선 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달 완주 · 전주의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통합 시설관리공단을 완주지역에 건립하고,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공식적으로 밝힌 두 번째 상생발전 비전이다.

특히 이번 교통 분야 비전에는 △시간선제 노선개편(봉동 · 용진 방면) △BRT 노선 연장 △교통관리공단 설립 △완주 북부권 터미널 조성 △100원 마을버스 △급행 · 심야버스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전주 · 완주 통합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시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운동목 전주 부시장과 완주 · 전주 상생발전 전주 시민협의위원회 송병용 부위원장, 노동식 지역개발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 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으로 시간선제 노선 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전주 · 완주 간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을 올 상반기 중 봉동 · 용진 방면 노선 개편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체 노선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각 마을을 운행하던 비효율적인 노선은 주요 거점 위주로 재편돼 배차 간격이 균일하게 줄고, 운행 효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시는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완주 · 전주 또 완주지역의 대표 신도시인 삼봉

지구, 운곡지구 등에 경유 노선을 신설하거나, 중회 운행하는 등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실제로 시는 주요 구간의 경우 15~22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돼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완주 · 전주 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통합 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 · 완주 간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BRT를 장기적으로는 완주 거점지역(삼례, 봉동, 3공단)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운영 등을 전담할 '교통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전주 · 완주 간 교통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완주 북부권에 새로운 버스터미널 개설도 추진한다.

송병용 전주시민협의회 부위원장은 "민간차원의 논의에 발맞춰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는 금일 발표가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교통분야 사업들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이미 한 생활권을 영유하는 완주 · 전주 주민들에게 양 지역 상생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큰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운동목 전주 부시장은 "완주와 전주가 하나의 도시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기반 일 것"이라며 "이번 교통 분야 비전이 두 지역 간 신뢰와 연대의 시작이자, 미래를 함께 여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함께금융 아카데미’ 본격화

전주시, 시민 눈높이 맞춘 금융교육 제공

전주시가 청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교육인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본격화했다.

시는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교육인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용성 높은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함께금융 아카데미'는 아동부터 노인,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젝트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애 단계에 맞는 금융 지식과 역량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청년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함께금융 아카데미'의 첫발을 내디뎠다.

구체적으로 시는 함께금융 아카데미의 첫 번째 교육으로 지난 9월과 10월

18세부터 39세 사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예 · 적금의 기본 △잔잔관리 기초 △신용관리 요령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상식이 다뤄졌다.

또한 시는 오는 5월 중에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 교육도 함께 추진해 '함께금융 아카데미'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화폐의 기본 개념 △합리적 소비 방법 △보이스피싱 ·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 등 실생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주시가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역 일 반 ·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시는 29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사전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생등급 지정 준비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곳을 대상으로 무료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날 설명회는 식약처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도입 30년 만에 폐지하고 오는 2028년 7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통합 운영기로 한 것에 대비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등급 지정 준비하는 업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및 평가절차 안내 △평가항목 설명 △대상 업소별 컨설팅 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각 업소를 방문해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과 미흡한 사항,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업소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제공할 계획 이다.

이와 관련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 중독 예방과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 약처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중음(★★)으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으로 지정되면 3년의 지정 기간 동안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출입 · 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전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우빌딩 8층에 전주세무서 · 북전주세무서와 협업체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근로 · 사업 · 연금 등이 있는 납세자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자신고 등을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 방법과

소득 발생 내역,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제출 안내문'을 오는 5월 16일까지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통합 창구에서 △1:1 신고 지원 등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기간에는 전화(063-281-8721~4) 상담도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 신고(손택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와 협력해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납세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2동 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청소지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주민센터(동장 김용태)는 29일 중화산2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대곤) 위원 및 원터재활노인복지센터(원장 이은경) 직원 등 10여명과 함께 사각지대 발굴 가구를 방문해 주거지 청소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발굴대상 주거지 청소지원은 건강 문제로 주거환경 정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거지 내부에 방치돼 있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발굴대상 가구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장년층 1인가구로, 현재, 폐지수거 판매금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차매 증상과



인지기능 저하로 생활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긴급지원(생계비)으로 관리 중이며,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 접수 후 선정 대기상태이다.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앞으로도 민 · 관이 협력해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돌봄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